

이웃종교 RELIGION

# 아웅산 수치 생일 맞아 각지 구명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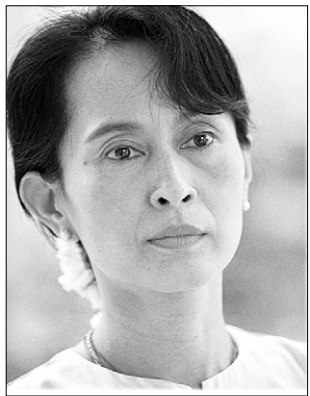
## 세계각국 유명인사 비롯 정치수들 탄원활동 이어져

지난 6월 19일 아웅산 수치 여사의 생일을 앞두고 세계 각지에서 구명운동이 일어났다. 100명 이상의 前 정치수들과 유명인사들은 수치 여사를 석방할 것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를 상대로 무기금수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버마·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의 핵심인물이자 정치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버마·미얀마 정부의 인권탄압과 이에 맞서 싸우는 민중들의 상징이다.

현재 수치 여사는 최근 가택연금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군부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연금이 재연장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등지의 20개 이상 국가의 전(前) 정치수들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64번째 생일이자 그



아웅산 수치 여사.

녀의 14년째 구금을 기념해 눈에 띄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www.64forsuu.org 사이트를 중심으로 탄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은 수치 여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64단어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폴 매카트니, 오노 요코, 보노, U2, 드루 배리모어, 데이비드 베컴, 산드라 불록 등의 유명인사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이었던 매리 로빈슨, 미국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등의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등록됐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치 여사의 구명운동에 동참해 눈길을 끈다. 김 전 대통령은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내셔널, AI)의 요청을 받아 특별 메시지를 추가로 발표했다. 김 전 대통령은 특별 메시지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해 계속되는 구금은 아시아의 수치이며, 버마 민주주의를 향한 평화적 정권이양과 정치개혁은 반드시 국제사회와 아시아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은은 기자

# 달라이 라마 민주주의 물결 필요 주장

## 티베트 다음 지도자 투표로 뽑을 것 제안

티베트의 정실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다음 지도자를 투표로 뽑을 것을 제안했다.

로이터통신 6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스님과 신도들을 위한 비디오 연설에서 “한 사람의 달라이 라마에게 정실적·정치적 지도력을 맡기는 것은 너무 버거운 일이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다”면서 민주적인 지도자 선거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 달라이 라마는 “지도자를 선거로 뽑는 민주주의적 체제는 더 넓은 세계와 보조를 맞추고, 정부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달라이 라마 한 명에게 정실적, 정치적 지도력을 모두 맡기는 것은 더이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달라이 라마 체제는 지난 400~500년 동안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왔고 꽤 유용했지만 이제는 끝났다.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주주의가 최고의 체제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티베트 망명정부에도 민주주의 물

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달라이 라마는 이전에도 자신이 죽은 뒤에 지금의 제도를 계속 시행할지 여부는 티베트인들에게 달려 있다고, 자신이 티베트인들에게 선거제도를 명령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은은 기자

# 캐나다 교도소 불교 교화서비스 활용

캐나다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선(禪)불교 상담서비스가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캐나다 통신(CP)의 6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연방 교정국 관리들은 재소자들에게 앞으로 3년간 불교를 바탕으로 한 정실적 가르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약 연장했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연방 교정국 관

리들은 “킹스턴의 쿨루타 불교센터(Kuluta Buddhist Centre)는 앞으로 3년간 40명의 불교도 수강자들에게 상담과 종교교육, 불교의 가르침을 제공하고 7만5천 달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불교센터의 한 교사는 “재소자들을 방문한 뒤 불교의 가르침이 중범죄자들에게 어물리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은은 기자

# “빨리 나아서 한국인 불자들 돕고 싶어요”

## 미안마서 수천 명 한국 불자 가이드 해온 진미한씨 급성골수성백혈병 앓아

“미한씨가 마음 굳게 먹고 치료를 잘 받아 병마를 이겨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지켜보는 강미금(42)씨는 오늘도 부처님 전에 남편의 쾌유를 빈다. 지난 5월 강씨는 미얀마인 남편 진미한(Myinthan·49)씨가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습니다. 더군다나 미얀마 출신인 미한씨는 외국인이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억 원에 가까운 치료비는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남방불교를 체험하고자 미얀마를 찾은 한국 수행자들을 도우며 생활해 왔던 진미한·강미금 부부. 남편은 투병하느라 부인은 간병하느라 여념이 없는 지금, 수입원이 끊긴 이들은 치료비까지 없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앞인데 답답격이랄까? 6월 17일부터 고려대 안암병원 무균실에 입원해 혈소판 주사를 맞으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진씨가 한국에 머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단기의 체류가 허가된 방문비자로 한



백혈병을 앓고 있는 남편 진미한씨를 돌보는 강미금씨

국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돈도 연고도 없는 진씨가 입원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개신교계 선교단체의 도움이 컸다. 하지만 이 단체에서도 3주간만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부부의 두 눈에서는 고마움의 눈물 한 권으로 서러운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

미안마에서 남방불교 수행을 하러오는 외국인들을 돕던 진씨는 위빠사나 수행 1세대인 거해 스님과의 인연으로 1990년부터 한국인 수행자들을 도왔다. 공항 픽업과 선원안 내, 수행지도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부부로 함께 수행하며 한국 불자들을 도왔다. 그러던 지난 5월 강씨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한국에 방문한 진씨는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 종합검진을 받았다. 검진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전전긍긍하다 법산 스님(아태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현재 이들을 돕고 있는 지훈 스님(인도 녹야원 주지)은 “두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치료비가 어마어마하다. 한국불자를 위해 무장보시를 행하던 미한씨를 이제는 한국 불자들이 도울 때”라며 불자들의 도움을 당부했다. 스님은 “더군다나 개신교 계가 나서 진미한씨의 의료비를 돕는 소식이 죄책감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병상에서도 가족들 걱정만 하던 착한 마음씨를 지닌 진씨는 “병이 완치되면 미안마에 돌아가 수행하면서 계속 한국 불자들을 돕고 싶어요”라며 간절히 말한다. 진미한 씨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불자들의 관심과 정성이 절실하다. 국민은행 MYINTHAN(예금주) 823701-04-198550/ 진미한씨 010-6656-8048

이은은 기자

# 맞춤형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복지사업 실시

## 한국체류 문제·여권갱신등 다양한 문제 해결해줘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6월 21일 구미 마하뭇다센터에서 맞춤형 인도네시아 이주민 복지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니콜라스 탄띠 답덴 인도네시아 대사, 민병조 구미부시장, 이흥희 구미시 경제통상국장, 박순이 구미시의원을 비롯한 마하뭇다센터 관계자와 경북지역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주민 행사에는 매일 3째 주 일요일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를 실시해 오고 있는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내과 구현철 교수와 간호사들이 함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니콜라스 탄띠 답덴 대사는 “여러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인도네

시아도 발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 도와주는 구미시와 마하뭇다센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오 대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상호 발전을 위한 노력이 구미에서 출발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무료진료를 체험한 인도네시아 여성근로자 띠아(32)씨는 “프리카까지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표현, 이런 행사를 통해 친구도 만나고, 고급음식을 먹어서 좋다. 대사 관에서도 내려와 한국체류 문제나 여권갱신, 고국 송금 등도 해결해 주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는 약 2400명으로 구미시에는 650여 명이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꿈을이루는사람들은 구미시



꿈을이루는사람들의 이주노동자 상담 모습

이주민 노동자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2000년부터 이주노동자상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직장폭력, 임금체불, 인권침해 예방과 이주민인식개선 캠페인, 한국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054)458-0755

해철 충청 지사장

# 모금캠페인 전략 지속가능 길 모색

“기와불사, 탁발, 연등 달기는 불교에 오래 전부터 모금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6월 24일 제3회 6월 정책포럼 ‘비영리조직의 모금캠페인 전략기회’를 개최했다. 포럼은 변화하는 사회복지환경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비영리조직의 운영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김재준 정책국장(아름다운가게)이 영리와 비영리의 현장을 넘나들며 쌓아온 노하우를 들려줬다. 이은은 기자

#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 미국 스탠튼대학교(Stanton University)부설 한국최면연구소

# 제42기 최면 「전생요법·빙의치유법」강좌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월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오후5시 까지)

- ▶개 강: 2009년 7월 6일(월)
-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 ▶수련비: 200만원
- ▶특 전: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가능

###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의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근검쟁제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중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화법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현재 접수중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 255-0734~5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